
대학 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가 이탈, 통제 및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이동헌 제주대학교 김남중*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조상용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An Effect on Drop-out, Control, and Socialization of University Martial Art Majors' Living Attitude

Lee, Dong-Heon *Je-ju National University* Kim, Nam-Jung *Korea Polytechnics College*
Jo Sang-YONG *Korea Polytechnics College*

ABSTRA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effect on drop-out, control, and socialization of university martial art majors' living attitude. So, this study collected samples on the object of three universities, Y University, K University in Gyeonggi-do, and H University in Jeju by questionnaire survey, applying convenient sampling method. Afterwards, this study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reliance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course analysis and led to the conclusion as followings. First, university martial art majors' living attitude had negative effects on drop-out (-). Second, university martial art majors' living attitude had positive effects on control (-). Third, university martial art majors' drop-out had positive effects on socialization (+). Fourth, university martial art majors' control had positive effects on socialization(+).

논문정보

논문투고 : 2014. 7. 25.
논문수정 : 2014. 8. 18.
게재확정 : 2014. 8. 22.

Key words :
drop-out,
control,
socialization

* E-mail : donghun94@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격투를 위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무도라 한다. 과거에는 국가의 방어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고대사회로부터 전쟁에서 전술, 전략을 비롯한 무기의 발달은 승패를 판가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전근대사회의 무도란 주로 개인의 완력은 물론이고, 병기를 다루는 기술을 포함한 모든 전투능력을 의미하였다(윤종홍, 2007).

대학에서 스포츠관련 및 무도전공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다. 현시대는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른 물질문명의 급속한 성장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부족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심각한 사회현상을 야기시킨다. 하지만 무도에서는 예를 중시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 예절을 갖추기 때문이다. 대학생 시기에는 적절한 신체활동과 올바른 인성형성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자는 무도가 인간교육차원에서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하고 사회화에서도 전인적 인간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시절 무도수련도중에 부상이라든지 경기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사회화의 이탈이 이루어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 박지영(2006)의 스포츠 선수들의 운동이탈 요인과 대학생활에 관한연구에서 체육특기자의 이탈요인으로 운동능력부족, 부상, 선수로서의 성공가능성 희박과 운동에 대한 염증 및 지도자와의 트러블이라 하였다.

통제란 즉각적으로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각성 되었을 때라도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그 만족을 지연하는 것이다(박지훈, 2013). 무도의 수련은 자신과의 싸움으로 힘겨움과 고통을 이겨낼 줄 알고,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통제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제안한 자아통제력이 약한 징후 6가지는 첫 번째로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 두 번째로 '복잡한 일을 싫어하고 손쉽고 간편한 일을 통해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것' 세 번째로 '신중하지 못하고 모험을 즐긴다는 것' 네 번째로 '정신적인 활동이나 지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 다섯 번째로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사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정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좌절감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를 '적은 노력으로 목전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행동'이라고 규정하였다(채화정, 2011 재인용).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Socialization via sport)는 하나의 사회체제인 스포츠 장면에서 학습된 기능, 특성, 가치, 태도, 지식 및 성향 등이 다른 사회현상으로 전이되어가는 일반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에 참가함으로써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용기, 성취성, 공정성, 바람직한 시민의식 등과 같은 인성 특성 또는 도덕적 특성이 함양된다는 것이다(임변장, 2002).

스포츠 이탈은 자의견 타의견 전연령층에 걸쳐 일어나며 그 이유도 다양하다. 이러한 스포츠활동으로부터의 전환에 따른 반응이나 현실 생활에의 적응은 이탈이 임의적이고 계획적 이어서 새로운 분야의 활동기회에 대한 만족감이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탈 과정이 타의적이고 예

기치 않아서 심리적 스트레스나 적응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조기행, 2010).

이러한 무도의 사회학적 연구는 최근의 일이며, 그 연구 영역별 내용은 소수에 불과하다. 무도에 포함되는 각각의 종목들이 여러 가지 독립변인을 사회성과 관련된 변수들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역으로 사회성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대학 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가 이탈, 통제에 따른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볼 필요성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무도 전공자들의 생활태도가 이탈 및 통제가 사회화에 관계된 학문적 연구성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4년 4월 ~ 5월 경기도 Y, K, 제주 H대학 3곳을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와 설문지 조사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교육 후 전공수업시간 할애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sted Method)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여, 기입을 마치면 바로 회수하였다.

경기도 대학 2곳에 총 250부를 배포하여, 100% 회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 무도전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n=250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02	80.8
	여자	48	19.2
연령	20세미만	91	36.4
	21세	54	21.6
	22세	9	3.6
	23세	19	7.6
	24세	20	8.0
	25세	30	12.0
	25세 이상	27	10.8
학년	1학년	79	31.6
	2학년	100	40.0
	3학년	37	14.8
	4학년	34	13.6
수련종목	유도	47	18.8
	태권도	103	41.2
	검도	39	15.6
	합기도	57	22.8
	택견	4	1.6
승단	1단	50	20.0
	2단	67	26.8
	3단	61	24.4
	4단	48	19.2
	4단이상	24	9.6
수련기간	5년미만	92	36.8
	10년미만	88	35.2
	15년미만	55	22.0
	15년이상	15	6.0

2. 설문지의 구성내용

대학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 이탈, 통제, 사회화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기존연구를 참조하여 설문 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pre-test)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모든 응답형태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분하였으며, 각 요인별 해당 설문문항을 요인분석 후 요인별 변수계산을 하여 사용하였다.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년, 수련종목, 승단, 수련기간으로 구성하였다.

2) 생활태도

생활태도에 관한 내용은 국내연구자(윤종홍, 2007; 김민균, 2013)가 사용하였던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3) 이탈

이탈과 관련된 설문문항은 박지영(2006)이 연구 사용하였던 문항을 본 연구에서 재사용하였다.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통제

통제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국내연구자(나성준, 2013; 박지훈, 2013; 채화정, 2011)이 연구사용하였던 문항을 본 연구에서 재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사회화

사회화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자(김두원, 1996; 김수진, 2009; 윤종홍, 2007; 임변장, 2002)이 연구사용하였던 문항을 본 연구에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척도의 평가

대학 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 이탈, 통제, 사회화 개념들간의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각 측정변수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이 탐색적 요인분석방법보다 단일차원성 검정에 보다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각 측정변수들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χ^2 , RMR, GFI, CFI, NFI, IFI 값을 사용하였다.

최적모형은 RMR 0.5이하, GFI 0.9이상, CFI 0.9 이상, NFI 0.9이상, IFI 0.9이상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요인들의 적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문항에서 제시된 높은 적합도를 생성하기 위하여 최종문항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사용하였다. SMC는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값 0.4이하를 기준으로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탈에서 1개 문항(이탈 6)이 0.4이하로 나타났다.

이탈 6은 SMC값이 기준치 0.4이하인 .317로 삭제하여 재분석한 결과 이번에는 만족 1이 0.4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 7과 만족 1 총 2개 문항을

표 2.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문항수	χ^2	p	df	RMR	GFI	CFI	NFI	IFI
생활태도	4	32.262	.000	2	.040	.945	.908	.904	.909
이탈	6	57.667	.000	9	.059	.926	.937	.927	.937
	5	38.133	.000	5	.046	.945	.951	.944	.951
통제	4	16.561	.000	2	.027	.968	.962	.957	.962
	3	-	-	-	-	-	-	-	-
사회화	5	33.133	.000	5	.030	.950	.955	.948	.955

삭제하여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에 따른 SMC값은 <표 3>과 같다.

2. 측정모델의 평가

<표 3> 적합변수의 SMC에서 적합하였으나, 최종모델에서 적합지수가 조금 낮게 나타났다. 최종

연구모델 SMC값을 확인하고 고객지향성 4는 .04 이하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제거하여, 최종모델 적합도는 <표 4>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측정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 수준이 나타났다.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 기준은 RMR은 0.5이하, GFI, CFI, NFI, IFI는 0.9 이상

표 3. 측정변수의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생활태도	변수	생활태도1	생활태도2	생활태도3	생활태도4		
	최종		.490	.516	.501	.538	
이탈	변수	이탈1	이탈2	이탈3	이탈4	이탈5	이탈6
	초기	.605	.693	.567	.577	.633	.317
	최종	.631	.723	.558	.591	.569	
통제	변수	통제1	통제2	통제3	통제4		
	초기	.599	.696	.562	.365		
	최종	.581	.784	.496			
사회화	변수	사회화1	사회화2	사회화3	사회화4	사회화5	
	최종	.541	.537	.717	.635	.529	

표 4. 측정모델의 평가

		Estimate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S.E	C.R.	P	SMC	Cronbach's
생활태도	생활태도1	1	.748			-	0.831	α=.805
	생활태도2	.937	.623	.105	8.903	***	0.878	
	생활태도3	.731	.573	.089	8.234	***	0.897	
	생활태도4	1.018	.8	.095	10.736	***	0.856	
이탈	이탈1	1	.766			-	0.518	α=.886
	이탈2	1.023	.761	.082	12.42	***	0.739	
	이탈3	1.118	.741	.093	12.054			
	이탈4	1.126	.851	.079	14.253	***	0.845	
	이탈5	1.022	.793	.078	13.068	***	0.745	
통제	통제1	1	.792			-	0.622	α=.828
	통제2	1.05	.844	.076	13.805	***	0.479	
	통제3	.897	.731	.074	12.037	***	0.538	
사회화	사회화1	1	.729			-	0.622	α=.878
	사회화2	1.017	.755	.074	13.737	***	0.702	
	사회화3	1.215	.85	.092	13.168			
	사회화4	1.078	.756	.092	11.706	***	0.623	
	사회화5	1.042	.737	.091	11.389	***	0.622	

$\chi^2=208.542$, $df=105$, $p=.000$, $RMR=.040$, $GFI=.910$, $CFI=.956$, $NFI=.915$, $IFI=.956$

으로 보고 있다(송지준, 2013). 그 결과 $\chi^2=208.542$, $df=105$, $p=.000$, $RMR=.040$, $GFI=.910$, $CFI=.956$, $NFI=.915$, $IFI=.956$ 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의 신뢰도 수준은 Cronbach' α 값을 살펴보면 생활태도 .805, 이탈 .886, 통제 .828, 사회화 .878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측정모델의 타당성 검증결과

측정모델을 분석한 후, 해당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측정모델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념 신뢰도값을 이용하였고,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균분산추출값(AVE)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개념신뢰도는 생활태도, 이탈, 통제, 사회화 모두 0.8 이상의 값을 보였다. 즉, 개념신뢰도

표 5. 상관계수

	생활태도	이탈	통제	사회화
생활태도	1			
이탈	-.419** (-.267)	1 (.847)		
통제	.471** (.232)	-.278** (-.182)	1 (.505)	
사회화	.470** (.234)	-.268** (-.177)	.716** (.366)	1 (.517)
AVE	0.963	0.979	0.974	0.977

* $p<.05$, ** $p<.01$ ()안의 수치는 공분산의 표준오차 값임

표 6. 가설검증결과

				Estimate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S.E.	C.R.	P	Label
H1	이탈	<—	생활태도	-.612	-.482	.100	-6.132	***	채택
H2	통제	<—	생활태도	.604	.585	.083	7.241	***	채택
H3	사회화	<—	생활태도	.155	.158	.077	2.004	.045	채택
H4	사회화	<—	이탈	-.005	-.006	.044	-.113	.910	기각
H5	사회화	<—	통제	.718	.759	.083	8.639	***	채택

값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 연구는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Fornell과 Larcker (1981)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구조모형 가설검증 및 논의

<표 6>에서 가설 1 “대학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가 이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결과 계수값이 -.612, C.R=-6.132로 99%의 신뢰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대학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가 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결과 계수값이 .604, C.R=7.241 99%의 신뢰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대학무도전공자들의 이탈이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결과 계수값이 .155, C.R=2.004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 “대학무도전공자들의 통제가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결과 계수값이 -.005, C.R=-.11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가설 5 “대학무도전공자들의 통제가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결과 계수값이 .718,

C.R=8.639로 99%의 신뢰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생활태도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생활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결과 무도전공자들의 대학생생활태도에서 이탈이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관련 선행연구자(양대승, 1992; 김두원, 1996; 진언용, 2007) 아동기 태권도 수련활동 시 이탈이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자아 통제력과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다(채화정, 2011). 또한 자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자아 통제력이 형성되며, 자아통제를 할 수 있으려면 상황을 평가하여 그것을 이전에 학습한 행동의 지침에 비교하는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며, 통제력의 반대 개념인 충동성을 감소시켜서 나타내거나 조정하는 능력도 요구된다고 하였다(이인정, 최해경, 2007). 비행의 요인을 보면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아통제력은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아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반면에 자아통제력이 약한 사람은 그만큼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태도가 통제, 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의 지지를 받는다.

통제는 무도 활동의 절제를 통하여 정서발달,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덕적 인격 발달 등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사회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였다.

무도활동은 통제와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학 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가 이탈과, 생활태도는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V. 결론

본 연구는 무도전공대학생들의 생활태도가 이탈, 통제에 따른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볼 필요성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관계된 학문적 연구성과를 얻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가 이탈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대학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가 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무도전공자들의 이탈이 사회화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대학무도전공자들의 통제가 사회화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대학 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가 이탈이 적을수록, 통제가 잘 될수록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도스포츠의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학문적 연구가 미비하여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무도전공자들의 졸업 후 연구가 전무한 상태로 졸업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무도수련자들의 이탈의 세분화된 연구가 아직 미미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두원(1996). 태권도가 성장기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균(2013). 초등학생 태권도 수련이 주의 집중력과 학습, 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09). 청소년의 무도수련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성준(2013).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가 공격성, 자아통제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06). Sport 선수의 운동이탈 요인과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훈(2013).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통제적 코칭행동과 스포츠 능력 믿음 및 운동지속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2013).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 양대승(1992). 태권도 수련이 아동기 자애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종홍(2007). 무도전공대학생의 무도학습 참여유형과 양식이 정신건강·인격형성·사회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정, 최해경(200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
- 임번장(2002).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동화문화사
- 조기행(2010). 태권도 경기참가에 따른 자아정체감 공동체 의식 및 스포츠 사회화의 관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언용(2008).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기간과 생활태도 변화와의 관계.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화정(2011). 비행청소년의 스포츠프로그램 중재가 자아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Fornell, C., & Lan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February), 39-50 .